

광주·전남 상장 6개사 ESG 등급 올랐다

A등급으로 한계단 오른 광주신세계 15개사 중 최고 등급
한전·금호타이어 2곳 B+등급...C등급 8개사로 가장 많아

기업계 전반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ESG 경영이 본격화한 가운데 올해 광주·전남 유가증권 상장사 15개사 가운데 6개사의 ESG 등급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76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ESG 평가' 결과에 따르면 ESG 통합등급에서 A등급(우수)을 맞은 기업은 전체의 22.4%에 달하는 171개사로 집계됐다.

전년 비중 12.1%(760개사 중 92개사) 보다 10.3%포인트 증가했다.

'탁월'을 뜻하는 S등급은 한 곳도 없었고, A+등급(매우 우수)은 전체의 1.8%인 14개사로 나타났다. C등급(취약)이 28.9%(221개사)로, 가장 많았고, B등급(보통) 27.6%(211개사), B+등급(양호) 17.7%(136개사), D등급(매우 취약) 1.6%(12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 15개 코스피 상장사에서는 지배구조·환경·사회 모범기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충실히 갖춘 S등급이나 A+등급은 없었다.

광주신세계는 전년(B+등급)보다 통합등급이 한 계단 오른 A등급을 받았다.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다.

광주신세계는 환경경영 점수가 C에서 B+로 상승되고, 지배구조 부문도 B+에서 A로 올랐다.

■ 광주·전남 유가증권 상장사 ESG 등급

법인명	2020	2021	전년비
광주신세계	B+	A	▲
한국전력	A	B+	▽
금호타이어	B	B+	▲
한전KPS	B+	B	▽
조선내화	C	B	▲
다스코	B	B	-
화천기공	C	B	▲
다이나믹디자인	C	C	-
금호건설	C	C	-
대우플러스	C	C	-
보해양조	B	C	▽
금호에이치티	D	C	▲
부국철강	D	C	▲
대우에이텍	C	C	-
DSR제강	C	C	-

〈자료:한국기업지배구조원〉

사회책임경영에서는 A등급을 전년과 같이 유지했다.

지역 15개사 가운데 올해 B+등급을 받은 기업은 한국전력과 금호타이어 2곳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A등급에서 올해 한 단계 내

려갔다. 한전은 환경(B+)과 사회(A) 부문에서 점수를 유지했지만 지배구조 부문이 A에서 B+로 하락했다.

금호타이어는 환경(B→B+)과 사회(C→A) 부문 등급이 오르면서 통합등급이 B+로 한 계단 상승했다.

B등급을 받은 법인은 전년과 성적이 같은 다스코와 한전KPS(B+→B), 조선내화(C→B), 화천기공(C→B) 등 4개사로 나타났다.

'취약'을 뜻하는 C등급을 맞은 기업은 총 8개사로 가장 많았다. C등급 기업은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비재무적 위험으로 인한 주주 가치 훼손의 여지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해양조가 전년 B등급에서 올해 C등급으로 한 단계 주저앉았다. 통합등급 하락은 환경(B→D)과 사회(B→C) 부문 등급이 떨어진 영향을 받았다.

세화아이엘씨가 이름을 바꾼 다이나믹디자인과 금호건설, 대우플러스, 대우에이텍, DSR제강은 전년과 같은 C등급을 유지했다.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맞았던 금호에이치티와 부국철강은 한 단계 오른 C등급을 기록했다.

최근 ESG 경영 관련 지표가 기업의 경영관행 개선과 투자를 위한 자료로 쓰이면서 각 기업들은 ESG 경영에 공을 들이고 있다. ESG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지배구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기구 강화, 제도 개선, 사회책임경영 정보 공개, 임직원 환경경영 참여 확대 등이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신세계 신관 2층 회원제 영어학원 '프로맘킨더' 교사·직원들이 어린이 고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회원제 영어학원 '프로맘킨더' 운영

놀이·교육 접목...가족 고객 잡기

광주신세계가 가족 단위 고객을 겨냥해 키즈카페와 영어학원을 접목한 회원제 시설을 도입했다. 광주신세계는 신관 2층(이마트 광주점 건물)에 회원제 영어학원 '프로맘킨더'가 운영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100% 직영으로 운영되는 이 시설은 신세계백화점 6곳에서 만날 수 있으며, 광주신세계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전국 16개 지점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4~9세로, 예약제로 운영된다. 회원제는 이용 시간 60시간부터 480시간까지 4가지가 있다. 구매 금액에 따라 정해진 유효기간 동안 이용 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교사 1명은 평균 두서명의 어린이를 관리하게 된다. 원어민 교사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등 '놀이형 키즈클럽'을 표방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입장 때마다 소독과 온도확인 후 하루 2회 이상 시설을 소독하고 있다"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CCTV 운영, 상비약 비치, 어린이 활동시간 2회 이상 송부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놀이와 교육을 접목한 '에듀테인먼트'에 영어학습까지 더해 교육에 관심이 많은 '키즈맘'들의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유아동 집객 콘텐츠를 통해 어린이 고객과 키즈맘 모시기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40개사와 워크숍

서남해 해상풍력 사례 공유

한국전력이 23일 60MW 규모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국내 40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한전은 서울 한전 아트센터 강당에서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서남해 실증사업 사례 공유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 해상풍력 관련 40여 기업 실무자와 이종환 사업총괄부사장,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력그립사, 전북도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서남해 실증사업은 현행 국내 최대규모(60MW)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기반으로 한다. 부안군과 고창군 해역에 조성돼 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6년 동안 개발한 뒤 3년 동안(2017년 5월~2020년 1월) 건설을 거쳐 2년 간 운영해오고 있다.

행사 참가자들은 '해상 테스트베드' 구축과 서남해 실증단지의 개발·건설·운영 성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2시간 동안 기술, 인허가, 인증, 주민수용성, 보험, 금융 등 사업개발 및 운영 전 분야에 참가한 담당자들이 세부적인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다.

또 고창 전력 시험센터에서 다양한 설비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단지 테스트베드 운영계획'이 논의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고향사랑 기부금 1억8300만원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오른쪽)이 23일 광주시를 찾아 '광주·전남(愛)사랑카드' 이용금액 일부인 1억83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지난 2018년 광주은행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이 카드 이용금액의 최대 0.5%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된다. 〈광주은행 제공〉

주산지 전남 가을배추 생산량 14% 감소

김장철 배추 가격 폭등 영향

전남이 최대 주산지인 가을배추 올해 생산량이 14% 넘게 감소하며 2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23일 통계청 '2021년 가을배추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114만7462t으로, 전년보다 14.4%(-19만2280t) 감소했다.

전국 27.9%를 차지하는 전남 생산량도 전년보다 13.8%(-5만1102t) 감소했다.

전남 가을배추 생산량은 지난 2019년 27만34t에서 이듬해 37만1543t으로, 37.6%(10만1509t) 급증했다가 올해 반락했다.

올해 전남 가을배추는 정식기(7~9월) 가격이 떨어지면서 재배면적이 줄고 기상악화로 생산효율도 떨어졌다.

재배면적은 지난해 3349ha(헥타르: 1만㎡)에서 올해 3226ha로, 3.7%(-123ha) 감소했다. 재배면적 10a(아르: 100㎡)당 생산량은 9933kg으로, 전년보다 10.5%(-1162kg) 줄었다.

통계청은 "지난해 7~9월 대비 배추 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줄었고, 올해 배추 포기가 형성되는 시기인 9~10월 고온과 병해가 발생해 10a당 생산량도 함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표본필지 870곳을 대상으로 한 가을배추 피해발생 비율은 지난해 28.5%에서 올해 43.6%로 크게 늘었다.

이어 "올해 생산량 감소는 지난 김장철 배추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광주 양동시장에서 팔린 가을배추 1포기 평균 가격은 427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79원) 보다 26.5%(897원)이나 비쌌다. 전남 가을무 생산량은 전년보다 8.1%(5673t) 늘어난 7만5879t이었으며, 전국 생산량은 39만6605t에서 43만5531t으로, 9.8%(3만8926t) 증가했다. 올해 가을무는 전북(11만5276t)에서 가장 많이 생산됐고, 전남이 뒤를 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98.17 (+13.69)
▲ 코스닥	1003.31 (+3.18)
▲ 금리(국고채 3년)	1.805 (+0.048)
↓ 환율(USD)	1187.90 (-4.10)

튼튼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